

## < 왕 같은 제사장 >

베드로전서 2:9 / 새찬송가 27 (통일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 1.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모든 것을 다스려도 영적세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즉 죄로 유혹하는 마귀와 악령들, 죄, 질병과 저주의 문제, 사망과 지옥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과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도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권세 있는 왕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사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욘34:18-20).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이 되시며 주의 주가 되십니다!

### 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인내하는 신앙이 있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습니다(딤후 2:11,12).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는 그가 주님으로부터 구원과 축복은 받기 원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축복을 받아도 염려, 근심,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려면,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롬8:17).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위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래로는 세상과 죄와 정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 대해 꾸짖고 명령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이요 명령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는 신앙과 세상에 대해 명령하고 다스리는 신앙을 동시에 갖고 둘 사이의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즉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가지처럼 주님께 모든 필요를 간구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판단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악령과 그로 인해 악해진 세상에 대해 명령하여 내쫓고

다스려야 합니다(요15:5-7), (고전2:15). 그리고 악령과 세상에 대해 명령하고 내어 쫓고 다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막16:17,18).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명령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 3.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마28:18-20), (벧전2:9).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성도는 먼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마5:13-16).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성도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빛이 되고자 하는 성도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제사장의 직무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으셨고 이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왕상3:11-14).

우리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하나님께 얻고자 한다면 솔로몬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지성을 무시하지 않은 초월지성이 되어야 하며, 참된 지혜를 구하여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영적세상, 보이는 세상, 죄, 정죄, 질병, 저주의 문제, 죽음, 지옥을 다스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 <적용&실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아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사모합시다.